열네번째 이야기

팬데믹(Pandemic) 안에 'Back to Basic'

[2020 '준비하라' 시리즈 ⑤]

예기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로 꼼짝없이 집에 갇힌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였지만 6.25 전쟁을 서울에서 겪어본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요. 고위험군에 속해 답답하고 힘도 들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더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주관자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단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우리 안의 죄악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출처: news.kbs.co.kr

이번 팬데믹(Pandemic)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진정 삶 가운데에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는 이 세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길로 돌이켜 새롭게 되라는 메시지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이 성령의 불길로 깨끗이 태워지고 다시 정결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랑이 생각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배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말씀과 행동이 괴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공공시설에서 손을 씻고 화장지를 한 장 쓸 것이냐 두 장 쓸 것이냐, 플라스틱제 콜라병, 우유병 등을 버릴 때 물로 병을 깨끗이 씻을 것이냐 아니냐(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인건비 문제로 재활용을 하지 않음), 병이나 박스에 붙어 있는 라벨을 떼고 버릴 것이냐 아니냐(라벨이 붙어 있으면 재활용 불가), 세제를 비싸더라도 친환경 세제 혹은 천연 세제를 쓸 것인지 아닌지, 자동차를 디젤차, 휘발유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어느 차로 사야 할지 등등 우리 삶 속에서 크건 작건 간에 내리는 결정이 주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남이 어떻게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스트레스가 싸여가며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갑니다. 이웃 사랑이 더욱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원래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지요.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 사랑은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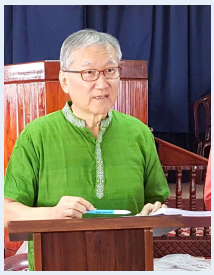
BEE에게 주신 사명도 어찌 보면 말씀을 통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지요. 진정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출처: BEE Korea홈페이지

이번 팬데믹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모든 분들도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섬기느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직도 남겨두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Back to Basic',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먼저 변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Pandemic):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전염성 질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함.



[글쓴이: 김형회 목사]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시고 온누리교회 부목사로서도 성공하시고, 물론 성공의 의미는 두 영역에서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공하신 분. 많은 이의 롤 모델로서 조용하시면서도 그의 삶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글: 김형회 목사, 정리: 최선, 편집: 최선]

BEE의 보석찾기-기도 테이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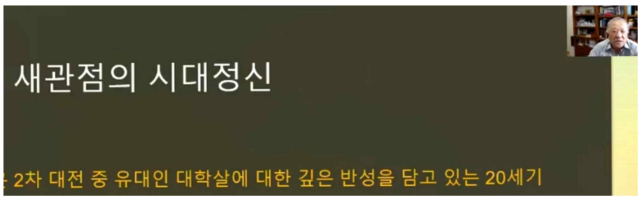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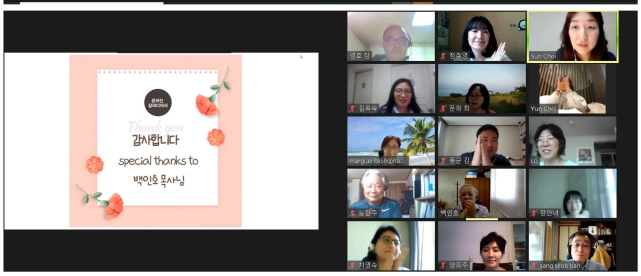
14. 동남아 기도 테이블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뜻밖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기도모임을 가졌을 때, 적은 인원이지만 테이블 식구들이 서로를 보며 너무 반가워했고, 만나서 하는 기도모임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로 하는 기도모임은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상섭 테이블 리더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5월 30일(토), 2020 온라인 갈라디아서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Zoom을 통해 새로운 IT 도구들을 활용하여 세미나를 인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세미나 터가 될 온라인에서 또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